

## B-2. Attached Gingiva Gaining for periodontal, orthodontic, prosthodontic and implant patients

최정학\*, 정진형, 임성빈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외과 수술은 단순히 염증유발인자를 제거하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치주염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지하기 양호한 치주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다. 치주외과 수술 중 치은-치조점막 수술은 치료적인 처치라기 보다는, 보다 양호한 치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처치라고 할 수 있다.

치주보철이나 임플란트 보철을 필요로 하는 치주질환이 진행중인 대부분의 증례는 부착치은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그 부위에 깊은 치주낭이나 골연하결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부착치은의 양과 염증의 심도, 치은퇴축과는 연관성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상적으로 부착각화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하악의 경우, 골소실로 인해 구강전정이 얇아진 부위에서는 치태 조절이 어렵고, 소대나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 removable denture의 유지력과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착각화조직을 넓힘으로서 구강전정을 깊게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착치은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부분충 근단 변위판막술, 유경이식수술, 유리치은 이식술, 결합조직이식술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은 증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부분충 근단 변위판막술은 치은이 두껍고 각화치은의 폭이 2-4mm 존재하고, 치은-치조점막 경계에 근접하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치주낭이 있는 경우에 부착치은의 폭을 증가시키고 치주낭을 제거하는데 적합한 처치이다. 각화치은이 완전히 결여되고 변연조직이 치조점막으로 이루어진 경우 유리치은 이식이나 결합조직이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화치은이 1-2mm 존재하지만, 하부 변연치조골의 두께가 매우 얇은 경우에는 부분충 근단 변위판막술보다 치은변연의 퇴축을 방지하고 심부 결합조직과 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유리치은이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증례는 mucogingival problem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부착치은을 획득하기 위해 시술을 시행한 결과, 보철물의 안정과 구강환경 유지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에 임상례를 보고하는 바이다.